

회의록(안)			
회의명	제31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		
일시	2018.7.13(금) 15:00~16:00	장소	363 바이아아이디어그룹
참석자 (총 5인)	- 위원: 오병일(진보네트워크), 김태은(KISDI), 윤복남(법무법인 한결), 이동만(KAIST), 이영음(한국방송통신대)		
- 위원: 5인	(존칭생략,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)		

□ Action Item

- 보고서 정리 및 검토 후 영문화 작업 진행
- 각 워크숍 제안자에게 참석자 의견 공유

□ 회의 주요내용

- 2018 KrIGF 결과보고 ※ 불임 참고
 - 2018 KrIGF 워크숍 개요, 논의내용,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결과
 - 서울창업허브 공동주관 및 후원으로 인한 대관료 제외
- 2018 KrIGF 평가(온라인)
 - (장소)
 - ▶ 층이 분리되어 포럼이 진행되는 경우, 스태프 또는 서포터즈가 상주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- ▶ 행사장소 특성상 다양한 자발적 참석자(스타트업)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음
 - ▶ 장소가 여러 층으로 분리되어 이동이 복잡하여 아쉬움
 - ▶ 각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기념품 수령 등 어려운 점이 있었음
 - ▶ 행사 참석자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마련되었으면 함

- (워크숍)

- ▶ 워크숍이 패널 위주로 진행되어 플로어와의 자유토론 시간이 부족함
- ▶ 워크숍 주제들이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잘 구성됨
- ▶ 패널이 적은 워크숍의 경우 플로어와의 토론시간이 길어져서 좋았음
- ▶ 발표자/토론자의 명패의 개선이 필요함
- ▶ 세션별 Q&A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
- ▶ 플로어와의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스킴보다는 U자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

- (KrIGF 행사준비 및 후속작업 등)

- ▶ 페이스북 또는 KrIGF 웹사이트 등 참석자 그룹을 만들어 워크숍 이후에도 특정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함
- ▶ 개회식 때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던 점이 좋았음
- ▶ 패널 및 참석자들에게 생중계 촬영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함
- ▶ 행사가 끝난 후 랩업 세션을 구성하던지,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모임지에 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함

○ 2018 KrIGF 평가(오프라인)

- (장소)

- ▶ 서울창업허브 장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
- ▶ 워크숍 장소와 투토리얼 장소의 층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음
- ▶ 식당에서 식사할 때 메뉴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음
- ▶ 내년 KrIGF를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할 시 식당에 메뉴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
- (워크숍)

- ▶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- ▶ 거버넌스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여러 거버넌스(환경 거버넌스, 오픈데이터 거버넌스 등)와 연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함

- ▶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면 모든 워크숍에는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
- ▶ 투토리얼에서 진행되었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주제를 내년 거버넌스 형태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길 바람

- (KrIGF 행사준비 및 후속작업 등)

- ▶ KrIGF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기사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- ▶ 오픈하여 워크숍 공모를 하더라도 워크숍 제출자들이 그룹 내에서 나오고 평가 하는 것으로 인해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음
- ▶ 다양한 그룹들에게 워크숍 제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
- ▶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패널로 구성하기 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
- ▶ 각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의장을 정하여 의장을 통해 패널 섭외에 대한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▶ 제7회 KrIGF 참석자들의 메일링리스트(KrIGF_Discuss)를 통하여 내년 KrIGF 및 거버넌스 정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▶ 참석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작성한 워크숍에 대한 의견을 각 제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▶ 각 워크숍별 보고서 정리하는 작업 진행 후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영문화 작업이 끝나면 국제 IGF에 제출 예정
- ▶ 올해 말쯤 내년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같고,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특정 영역 분야에 대해 간략한 발제를 통한 스터디 필요

2018 제7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(KrIGF) 결과보고

2018. 7. 13. (금).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 사무국

□ 2018년 제7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(KrIGF) 개요

- 주 제 :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, 투명한 거버넌스
- 일 시 : 2018년 7월 5일(목), 09:30~17:00
- 장 소 : 서울창업허브(공덕역), 대강당, 세미나실1,3,4, IR 미디어룸
- 주 최 :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
- 주 관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서울창업허브,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, 네이버, 가비아, 우아한형제들, 사이버커먼스, 사단법인 오픈넷, 법무법인(유) 한결, 진보네트워킹센터, (사)한국인터넷기업협회,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, 정보인권연구소, 정보공유연대 IPLeft, 사단법인코드, 카카오,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, GP3 Korea (총 18개 기관)
- 후 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네이버, 가비아, 법무법인(유) 한결, 우아한형제들, 카카오 (5개 기관)
- 홈페이지 : www.krifg.kr
- 참석인원 : 195명(사전등록 169명/410명(87%), 현장등록 26명(13%))
 - 학계 28명(14%), 산업계 48명(25%), 시민사회 22명(11%), 기술계 11명(6%), 공공계 26명(13%), 일반이용자 60명(31%)

□ 워크숍 논의내용

- 워크숍1 :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&레그테크
 - 플로어 : 약12명 참여, Q&A : 1회

-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레그테크 산업은 블루오션의 시장이고 기회와 위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부상하는 좋은 기술력이며, 이제는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논의와 질서의 확립이 필요

○ **워크숍2** :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?

- 플로어 : 약 15명 참여, Q&A : 3회
-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현황과 이슈,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한국의 인터넷 감시, 인터넷 검열,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등에 대한 발제 및 논의

○ **워크숍3** :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

- 플로어 : 약 12명 참여, Q&A : 3회
- 최상위 도메인 관련 한글 및 한자 혼용 사용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토론 및 이체자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한 한국의 방향성 제시

○ **워크숍4** :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미래

- 플로어 : 약 12명 참여, Q&A : 1회
- 광고를 줄이고, 자극적인 기사 등 휘발성 강한 뉴스를 줄여 퀄리티 있는 뉴스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인식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강조

○ **워크숍5** :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

- 플로어 : 약 20명 참여, Q&A : 2회
-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, 야기하는 문제,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대체 수단,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 토론

○ **워크숍6** : 데이터 거버넌스 :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

- 플로어 : 약 25명 참여, Q&A : 2회
-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과 동시에 많아지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DPR의 목적과

한계,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

○ **워크숍7** :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: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?

- 플로어 : 약 20명 참여, Q&A : 2회
- 해외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중재접속, 유료직접접속 등 다양한 형태의 접속이 우리나라 고시 하에서 경쟁을 저하시키는 형태로 나타남과 동시에 고시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

○ **워크숍8** :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

- 플로어 : 약 19명 참여, Q&A : 1회
- 혐오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, 규제해야하는 것인지?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, 혐오 대상 및 표적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

○ **워크숍9** : 인공지능(AI)의 활용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

- 플로어 : 약 15명 참여, Q&A : 3회
-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프라이버시 문제, 윤리적 가치판단 책임 소재,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위험과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

○ **튜토리얼1** :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

- 플로어 : 약 50명 참여, Q&A : 3회
-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및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셋 소개, 실제 플랫폼을 구현하면서 직면했던 어려움 공유와 오픈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제안점 제시

○ **튜토리얼2** : 블록체인과 커먼즈 생태계

- 플로어 : 약 30명 참여, Q&A : 2회

- 블록체인과 화폐가 갖는 의미와 기술에 대한 발표 및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효율적인 면과 비효율적인 면에 대한 장단점 제시

o **투토리얼3** :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

- 플로어 : 약 30명 참여, Q&A : 3회
- 국제에서는 지금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 실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, 이에 대한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활용, 신원정보 관리, 전자투표, 자산 등록, 세금, 해외 공적개발원조 등 세부분야 검토

o **투토리얼4** : 스타트업 - 2018 트렌드&이슈 살펴보기

- 플로어 : 약 20명 참여, Q&A : 4회
- 스타트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와 현재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은 비용, 인프라 구축의 불필요, 글로벌 플랫폼 활용 등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쉬워진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

[별첨] 만족도 조사결과(설문조사)

[별첨] 만족도 조사결과(설문조사)

1. 설문 참여자 분포 (총 73명 응답)	공공계	학계	산업계	시민사회	기술계	이용자
	24.6%	9.5%	36.9%	17.9%	8.2%	17.8%

2.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참여 경험	있음	17.8%
	없음	82.2%

3. 워크숍 만족도 (오전 세션)	워크숍	내용 유익성	시간 적절성
		워크숍 1 (7명 응답)	100%
	워크숍 2 (14명 응답)	78.5%	71.4%
	워크숍 3 (12명 응답)	75%	75%
	투토리얼 1 (34명 응답)	85.2%	85.2%

4. 워크숍 만족도 (오후 세션)	워크숍 4 (10명 응답)	80%	90%
	워크숍 5 (12명 응답)	83.3%	75%
	워크숍 6 (18명 응답)	77.7%	72.2%
	투토리얼 2 (32명 응답)	87.5%	84.3%

5. 워크숍 만족도 (오후2 세션)	워크숍 7 (16명 응답)	68.7%	81.25%
	워크숍 8 (11명 응답)	54.5%	54.5%
	워크숍 9 (13명 응답)	76.9%	61.5%
	투토리얼 3 (13명 응답)	76.9%	84.6%
	투토리얼 4 (18명 응답)	88.8%	94.4%

6. 행사장 및 서비스 만족도	행사장 시설 (67명 응답)	91%
	진행 및 서비스 (67명 응답)	85%

7. 기타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, Tutorial 부분이 특히 좋았음 - 블록체인에 대해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고 내년에는 에너지 분야 현업에 계신 분도 모시면 좋겠음 - 좌석준비가 미비하였으며 세미나실 위치선정이 아쉬웠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만족스러웠음 - 사전등록 혹은 포럼 홍보 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해주면 좋겠으며, 시설, 패널, 점심, 커피 등은 매우 만족스러웠음 - 『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』 워크숍은 현재 무슬림이나 난민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장이었음 다만, 혐오표현에 대한 Insight가 없는 상황에서 발제를 좀 더 다루고 토의를 진행했으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- 준비된 강의 내용보다 주어진 시간이 모자랐으며, 강의 공간이 작았음
----------	---

- PPT 화면 등을 청중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면 좋겠음
- 패널 중 목소리가 크신 분이 발언권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 해결 필요, 사업자 입장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의견도 수렴 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언론관련 부분에서는 언론사 등 정보보호에서는 관련업계.. 각자의 시각이 다르므로 다른 시각제공이 필요
- 망사용료 관련 워크숍의 경우 발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보이거나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는 뻘한 내용들이 많았음 좀 더 주제에 Focus된 발제가 필요하고 일부 내용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
- 정부기관의 참여가 부족해 조금 아쉬웠으며, 패널 명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음
- 한자 도메인 관련 패널 편향이 심각(4:1, 여론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구성)하여 추후 논의 시 균형 있게 바람 / 워크숍9 인공지능(A.I.)의 경우 진행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음
- 인터넷의 근간인 네트워크에 대한 4차산업, 즉 한국의 기존 성장 기반인 제조 산업에 어떠한 환경과 접목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접근의 토론이 필요해보임
- 워크숍 내용과 관련된 팸플릿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
- 워크숍4의 경우 패널의 수준이 너무 낮았음 전혀 발전적이지 않은 논의들만.. 워크숍7은 전반적으로 구성이 미흡 (발제자의 역량 및 패널 구성이 편향적)
- 여러 세션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, 안내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마음에 남음
- 투토리얼3의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은 내용을 충분히 발전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텐데 흥미유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음
- Q&A 시간이 더 필요한 듯
- 향후에도 이 장소에서 포럼이 열리길 바라며, Key note speech 없이 간략한 코멘트로 진행된 개회식이 독특했음